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in Community-dwelling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김혜순*, 이명희**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Hye-Soon Kim(hsoon587@yahoo.co.kr)*, Myung-Hee Lee(mhlee44@shinsung.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양육미혼모 65명을 대상으로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재가 양육미혼모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3.52점, 사회적지지 3.49점, 상태불안 2.47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은 연령,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적지지는 연령, 평소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태불안은 연령, 평소 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r=.286, p=.021$)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r=-.780, p<.001$)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상태불안($r=-.425,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 변수로서 상태불안과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고 상태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양육미혼모 | 자아존중감 | 사회적지지 | 상태불안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in community-dwelling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65 participants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May to December, 2011. First, the mean of self-esteem was 3.52, social support 3.49, and state anxiety 2.47 respectively.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r=.286, p=.021$),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r=-.780, p<.001$),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r=-.425, p<.001$). Self-esteem for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in the study was confirmed as the primary important concept.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was verified as significant. Therefore, study is needed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mprovement, and state anxiety decrease of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 keyword : |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 Self-Esteem | Social Support | State Anxiety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개방화와 함께 고령화, 낮은 출생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가족은 형태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특정한 가족형태에 부여되어왔던 정당성의 토대 역시 크게 약화되는가 하면, 가족의 개인화 경향 역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이혼 및 독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역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1].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그중에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사별, 이혼, 별거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를 말한다[2]. 이중 자녀양육을 결정한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 확인 이후 낙태와 출산, 입양과 양육 갈등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생계부양자로서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편견을 넘어서 아기엄마로 홀로서기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3-6].

국내에서 혼외 출산은 매년 약 6,000명에서 1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는 1997년 6.7%, 2000년 9.6%, 2005년 28.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 37.7%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8]. 양육미혼모 자녀의 주돌봄자는 미혼모 본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자녀 양육비 부담을 가장 주된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재가 양육미혼모들은 부모 역할 수행과 관련 양육자로서의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1][9].

선행연구에서 미혼모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10][11].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양육미혼모는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이 높고 사회적지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15]. 또한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에 따라 미혼모 자신도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불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0][16].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지는 생의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개인이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생의 초기 단계에 발달확장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17].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대처 노력을 지속하도록 이끌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완충기능을 하여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킨다[18]. 미혼모들은 임신을 확인한 이후부터 분만, 그리고 아기 양육을 결정한 이후에도 불안함을 매우 다양하게 호소하고 있으나[3-5]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연구를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양육미혼모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과정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세 변수의 관계를 동시에 검증한 연구는 드물며,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양육미혼모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19]. 이에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자아존중감 향상과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함에 있어 재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재가 양육미혼모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를 비교한다.
- 4)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3. 용어 정의

3.1 양육미혼모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그중에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사별, 이혼, 별거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를 말한다[20]. 본 연구에서 재가 양육미혼모는 집에서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의미한다.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문태정[23]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이 돌보아지고 사랑받고 있으며 사회의 조직망내에서 가치있는 일원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24].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2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4 상태불안

상태불안은 불특정적이며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여러 가지 유형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걱정과 감정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26].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26]의 상태불안 척도를 김정택과 신동균[27]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혼모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미혼모지원센터 두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등록된 미혼모 중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 양육미혼모를 유한모집단으로 미혼모지원센터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다. 대상자는 미혼모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 설문지 배부와 회수를 맡은 미혼모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1인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취지와 응답을 원치 않은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준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도록 교육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재가 양육미혼모가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기록하게 하였고, 응답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8분~10분 이었고 응답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5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였으며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6부 수거되었고 설문내용에 불충분하게 답한 총 11부를 제외한 총 65부를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표본 크기는 Faul, Erdfelder, Buchner와 Lang[28]이 제시한 G*pow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상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 .30로 선정했을 때 최소인원은 64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65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22]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문태정[2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아니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총 자아존중감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22]의 자아존중감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문태정[23]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박지원[2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정서적지지 4문항, 정보적지지 4문항, 물질적지지 4문항, 평가적지지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잘모르겠음'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총 사회적지지 점수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지원[25]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3.3 상태불안

상태불안 측정도구는 Speieberger[26]에 의해 개발된 상태불안을 김정택과 신동균[2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긍정문항 10문항과 부정문항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많이 그렇다' 3점, '매우 많이 그렇다' 4점으로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총 상태불안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pielberger[26]의 도구 개발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Kolmogorov-Smirnov test 결과 가정된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의 누적확률과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Z=0.729 \sim 1.530$, $p=.019 \sim .662$) 정규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모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5.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비교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
- 3)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재가 양육미혼모의 연령은 평균 26.84세(± 5.84)로 '20-24세' 22명(33.8%), '25-30세' 20명(30.8%), '35-39세' 10명(15.4%), '31-34세' 8명(12.3%), '19세 이하' 5명(7.7%)이었다. 가족수는 평균 3.06(± 1.56)명 이었고, 종교는 '있다'가 49명(75.4%)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초졸이하'와 '중졸' 18명(27.7%), '고졸' 15명(23.1%), '대학졸 이상'이 각각 14명(21.5%)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 39명(60.0%), '초졸이하' 14명(21.6%), '중졸' 과 '대학졸 이상'이 각각 6명(9.2%)의 순이었고, 부모 생존 상태는 '이혼' 39명(60.0%), '동거' 20명(30.8%), '아버지 사망' 6명(9.2%)으로 나타났다.

거주상태는 '아기와 함께 거주' 38명(58.6%), '형제와

함께 거주' 11명(16.9%),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거주' 9명(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피로감은 '자주 느낀다' 28명(43.1%), '약간 느낀다' 19명(29.2%), '항상 느낀다' 18명(27.7%)로 응답하였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49명(75.4%)이 가장 많았다. 자녀 연령은 '9개월' 9명(29.1%), '7개월' 8명(25.9%), '8개월'과 '10개월'이 각각 7명(22.5%)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5)

Variable	Category	n(%) / M±SD
Age (years)	≤19	5(7.7)
	20-24	22(33.8)
	25-30	20(30.8)
	31-34	8(12.3)
	35-39	10(15.4)
		26.84±5.84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3.06±1.58
Religion	Have	49(75.4)
	No	16(24.6)
Fa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27.7)
	middle school	18(27.7)
	High school	15(23.1)
	≥College	14(21.5)
Mo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4(21.6)
	middle school	6(9.2)
	High school	39(60.0)
	≥College	6(9.2)
The survival of status parents	Living	20(30.8)
	Divorce	39(60.0)
	Father died	6(9.2)
Resident status	Living with father or mother	7(10.5)
	Living with siblings	11(16.9)
	Living with relatives or friend	9(14.0)
	Living with a baby	38(58.6)
Usual fatigue	Feel a little	19(29.2)
	Often feel	28(43.1)
	Always feel	18(27.7)
Income (10,000won)	Less than 100	49(75.4)
	100~200	10(15.4)
	≥200	6(9.2)
Children age (months)	7	19(29.3)
	8	14(21.5)
	9	18(27.7)
	10	14(21.5)

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상태불안 정도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평균 3.52(±.62), 사회적지지는 평균 3.49(±.79), 상태불안은 평균 2.47(±.48)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of perceived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n=65)

Variable	M±SD	Min	Max
Self-esteem	3.52±.62	2.50	4.90
Social support	3.49±.79	1.27	5.00
State anxiety	2.47±.48	1.40	3.60

3.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차이검증

3.1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자아존중감 차이검증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각한 자아존중감 정도는 연령(F=3.52, p=.012), 아버지 교육정도(F=4.81,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31-34세(4.17±.66)'가 가장 높았고 '19세 이하(3.26±.0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졸업(3.81±.57)'의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교육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3.2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사회적 지지 차이검증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정도는 연령(F=3.31, p=.016), 아버지 교육정도(F=3.83, p=.008), 평소 피로감(F=8.05, p=.001), 월수입(F=4.13, p=.0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31-34세(4.29±.46)', '35-39세(3.56±.82)', '19세 이하(3.43±.39)', '20-24세(3.32±.79)', '25-30세(3.21±.77)'의 순으로 30대가 10대와 20대보다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사회적지지는 '고등학교 졸업(3.61±.52)'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

Table 3. Differences in the Concep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5)

Variable	Category	Self-esteem			Social support			State anxiety		
		M±SD	F/t	p	M±SD	F/t	p	M±SD	F/t	p
Age (years)	≤19	3.26 ^c ±.05	3.52	.012	3.43 ^{ab} ±.39	3.31	.016	2.30 ^{bc} ±.14	6.49	<.001
	20-24	3.37 ^{abc} ±.72			3.32 ^{bc} ±.79			2.66 ^{ab} ±.56		
	25-30	3.61 ^{ab} ±.52			3.21 ^c ±.77			2.44 ^{abc} ±.27		
	31-34	4.17 ^a ±.66			4.29 ^a ±.46			1.85 ^c ±.45		
	35-39	3.32 ^{bc} ±.36			3.56 ^{ab} ±.82			2.69 ^a ±.33		
Religion	Have	3.45±.51	-.56	.573	3.56±.42	.60	.545	2.43±.38	-.38	.705
	No	3.55±.66			3.42±.87			2.48±.52		
Fa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43 ^{bc} ±.05	1.35	.013	3.25±.94	.38	.611	2.56±.66	.25	.372
	middle school	3.81 ^a ±.57			3.51±.60			2.31±.44		
	High school	3.15 ^c ±.27			3.61±.52			2.56±.34		
	College & over	3.68 ^b ±.50			3.46±1.02			2.46±.37		
Mo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48±.66	.25	.594	3.28±1.18	.32	.684	2.46±.25	.27	.325
	middle school	3.86±.81			3.63±.50			2.17±.60		
	High school	3.50±.62			3.51±.65			2.54±.41		
	College & over	3.46±.33			3.27±.84			2.33±.30		
The survival of status parents	Living	3.49±.42	1.09	.340	3.50±.56	.11	.892	2.56±.32	2.89	.063
	Divorce	3.59±.70			3.44±.71			2.37±.51		
	Father died	3.20±.62			3.33±1.69			2.82±.60		
Resident status	Living with father or mother	3.54±.58	.92	.928	3.32±1.14	.49	.514	2.58±.49	.07	.835
	Living with siblings	3.48±.67			3.72±.63			2.38±.54		
	Living with relatives or a friend	3.65±.62			3.21±.71			2.49±.47		
	Living with a baby	3.50±.64			3.40±.89			2.47±.53		
Usual fatigue	Feel a little	3.71±.59	1.30	.280	3.95 ^a ±.66	8.05	.001	2.19 ^c ±.44	8.39	.001
	Often feel	3.49±.61			3.39 ^b ±.60			2.46 ^b ±.47		
	Always feel	3.38±.67			3.02 ^c ±.90			2.78 ^a ±.36		
Income (10,000won)	Less than 100	3.53±.62	.63	.200	3.31±.75	.25	.675	2.51±.50	.10	.644
	100~200	3.60±.74			3.58±.72			2.36±.51		
	≥200	3.16±.55			3.43±.72			2.64±.51		
Children age (months)	7	3.45±.63	.44	.722	3.54±.81	.31	.812	2.50±.54	.17	.914
	8	3.63±.64			3.31±.77			2.40±.44		
	9	3.43±.60			3.54±.84			2.51±.50		
	10	3.62±.65			3.37±.76			2.43±.46		

a)b)c: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으나 어머니의 교육정도와는 차이가 없었다. 평소 피로감은 ‘약간 느낀다(3.95±.66)’의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가장 높았고, ‘자주 느낀다(3.39±.60)’, ‘항상 느낀다(3.02±.90)’의 순으로 평소 피로감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는 낮게 나타났다.

3.3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상태불안 차이검증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의

정도는 연령(F=6.49, p=.000), 평소 피로감(F=8.3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상태불안은 ‘35-39세(2.69±.33)’가 가장 높았고 ‘31-34세(1.85±.4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상태에 따른 상태불안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3.46±.00)’에 상태불안이 가장 높았고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2.66±.00)’,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2.50±.34)’, ‘아기와 함께 사는 경우(2.47±.53점)’의 순이었고,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2.21±.17점)’에 상태불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4.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r=.286, p=.021$)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r=-.780, p<.001$), 사회적 지지와 상태불안($r=-.425,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Self-esteem	Social support	State anxiety
Self-esteem	1		
Social support	.286*	1	
State anxiety	-.780***	-.425***	1

* p<.05, ** p<.01, *** p<.001

IV. 고찰

본 연구결과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평균 3.52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김연희[29]의 연구에서 3.42점, 최유리[30]의 3.5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옥[31]의 자아존중감 3.71점, 김진영[32]의 3.81점 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은주[33]의 자아존중감 2.97점 보다는 높게 나타나, 양육미혼모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보다는 낮고 결혼이주여성 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연구에 따라 대상자가 만나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각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평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나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나 자신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다양한 프로그

램은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연령,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31-34세’가 4.17점으로 가장 높고 ‘21-24세’ 3.37점, ‘19세 미만’ 3.26점의 순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졸업’이 3.81점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3.54점, ‘아기와 함께 사는 경우’ 3.50점의 순이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친척 또는 친구와 거주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1][7][3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평균 3.49점으로 평균이상이었다. 이는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임선희[12]의 연구결과 3.24점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였고, 가정폭력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연경[35]의 사회적지지 3.69점, 김명숙[36]의 3.44점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부는 미혼모보호시설과 모자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센터를 통하여 분만과 아기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의료혜택 및 경제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일부는 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도움 및 정서적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3].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지각된 사회적지지 즉 주관적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적지지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타인에게서 사회적지지를 제공받지 않거나, 제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지로서 이용될 수 없다[37].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 향상을 위해서는 미혼모, 가족, 사회 모두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벗어나 아기 엄마로 홀로서기를 하는 재가 양육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먼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아버지의 교육정도, 평소 피로감 이었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31-34세' 4.29점, '35-39세' 3.56점, '19세이하' 3.43점, '20-24세' 3.32점, '25-30세' 3.21점으로 30대, 10대, 2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는 분만 시 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 분만을 하게 되어 병원이나 조산소의 소개로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부터 30대는 대중매체의 신문이나 잡지 광고를 보고 미혼모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시설을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20대 초는 미혼부 또는 친지의 권유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1][7][10].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사회적지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피로감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약간 느낀다' 3.95점, '자주 느낀다' 3.39점, '항상 느낀다' 3.02점으로 평소 피로감이 적을수록 재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와 월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200만원' 3.58점, '200만원이상' 3.44점, '100만원 이하' 3.31점의 순이었다. 이는 여성가족부[1][7]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는 연령이 '19세 이하'이거나 '30세 이상'에서,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지 않을수록,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 일수록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구와 유사하였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상태불안은 평균 2.47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최유리[30]의 2.53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창숙[38]의 혈액투석환자의 상태불안 2.22점과 양미선[39]의 척추수술환자의 2.20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태불안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되는 인간의 정서 상태로 주관적이고 긴장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며, 또한 상태불안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위액분비 억제, 식욕부진, 수면장애, 두통, 피로와 같은 신체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까지도 발생한다[26]. 재가 양육모가 지각하고

있는 상태불안이 단기간 신체에 침습적 행위가 적용되는 혈액투석과 척추수술을 받는 대상자 보다 높다는 것은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의 불안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과 동시에 상태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태불안은 연령, 평소 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상태불안은 '35-39세' 2.69점으로 가장 높았고 '31-34세' 1.8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소 피로감에 따른 상태불안은 '항상 느낀다'의 경우 2.78점, '자주 느낀다' 2.46점, '약간 느낀다' 2.19점의 순서로 평소 피로감이 높을수록 상태불안도 높게 나타났다. 거주상태에 따른 상태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2.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 2.49점, '아기와 함께 사는 경우' 2.4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상태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미혼모 스스로 아기 장래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미혼부와의 미해결된 관계 및 갈등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편견과 비난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죄책감, 가족들의 비난,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상태불안이 가중됨을 판단할 수 있다[3][12]. 따라서 향후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 사회적지지와 상태불안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상태불안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고, 상태불안이 낮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태정[14]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최유리[30]의 상태불안과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고,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와 부분적으

로 일치하고 있다[40]. 미혼모는 자아존중감이 낮아 불안 발생 가능성이 크며, 부정적인 자아를 인식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게 되어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열등시 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10][34]는 연구보고는 우리사회가 재가 양육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사료된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긍정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지지 속에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태불안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은 향상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재가 양육미혼모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상태불안이 낮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상태불안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임신 초기 단계부터 개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상황에 따른 불안을 감소시켜 재가 양육미혼모가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존감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 65명을 대상으로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혼모 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미혼모지원센터에 등록된 재가 양육미혼모를 임의표집하였고 SPSS/PC⁺ Win 15.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의 정도는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

로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연령,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사회적지지는 연령, 평소 피로감에 따라, 상태불안은 연령, 평소 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상태불안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고 상태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대상자수가 적어서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세변수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이 필요하며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와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여성가족부,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00.
- [2]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NASW Press, 1995.
- [3] 이명희,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2007.
- [4] 김혜선, 김은하, “미혼 양육모의 양육결정 체험: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pp.373-393, 2006.
- [5] 최양자, “미혼모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0권, 제4호, pp.331-341, 2004.
- [6] 노승미,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2002.
- [7] 여성가족부, *미혼모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2005.
- [8]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늘푸른 포럼: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청소년 양육미혼모 실태 조사 보고,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8.
- [9] 이재정, 양육미혼모의 욕구에 대한 질적분석과 사회복지실천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2003.
- [10] 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84.
- [11] C. Morgan, G. N. Chapar, and M. Fisher, "Psychosocial Variables Associated with Teenage Pregnancy," *Adolescence*, Vol.30, No.2, p.277, 1995.
- [12] 임선희, 시설 입소 미혼양육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지지 실태,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2007.
- [13] 안재진, 김지혜,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pp.61-87, 2004.
- [14] 문태정, 미혼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안, 2004.
- [15] 이지연, 시설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1.
- [16] 배미영, 미혼모 발생요인 분석. 미혼모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2000.
- [17] R. J. Turner, D. A. Lloyd, and P. Roszell, "Personal Resources and the Social Distribu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7, No.5, pp.643-672, 1999.
- [18] B. L. Moran and D. L. DuBois, "Relation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o Problem Behavior: Investigation of Differing Model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2, No.4, pp.407-435, 2002.
- [19] 이명희, "미혼모에 관한 국내 논문 분석",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제7권, 제1호, pp.73-88, 2004.
- [20]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Washington DC: NASW Press, 1995.
- [21]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1979.
- [2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3] 문태정, 미혼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 2003.
- [24]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pp.300-314, 1976.
- [25]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85.
- [26] C. D. Spielberger, "Anxiety on emotional state," *Current trend in theory and research*, Vol.1, pp.488-493, NY: Academic Press, 1972.
- [27] 김정택, 신동균,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21권, 제11호, pp.69-75, 1978.
- [28] F. Faul, E. Erdfeder, A. Buchner, and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pp.1149-1160, 2009.
- [29] 김연희, 음악치료가 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0] 최유리, 음악활동이 미혼모의 불안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1] 김상옥,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2] 김진영,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3] 고은주,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4] 한영주,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35] 최연경,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6] 김명숙,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7] C. Schaefer, J. C. Coyne, and R. S. Lazarus,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4, No.4, pp.381-406, 1981.
- [38] 이창숙, *통합감각프로그램이 혈액투석 환자의 상태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9] 양미선, *웃음요법이 척추수술 환자의 통증과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0]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1권, 제9호, pp.225-237, 2011.

이 명 희(Myung-Hee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신성대학교 인성교육관 관장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한방간호, 미혼모

저 자 소 개

김 혜 순(Hye-Soon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79년 11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간호대 학장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스트레스관리